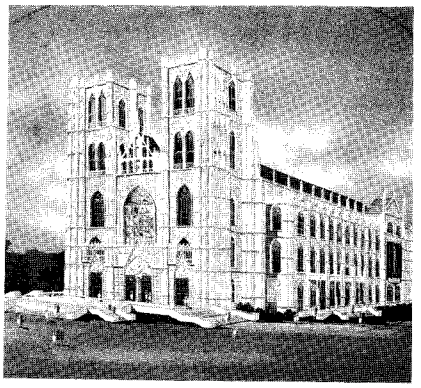
미래상을 말한다

경희의 미래를 듣는다



교 수

안 봉 원
〈산업대교수·조경학〉

전철유치 도서관 완공으로 미래상 낙관

수원 캠퍼스는 79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고 80년도부터 이곳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15년이 지난 현재는 6개 대학에 37개학과 그리고 1개 특수대학원이 개설되었고 재학생수만도 약 9천여명에 이르러 서울캠퍼스와 쌍벽을 이루는 대규모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급속한 발전은 여러가지 면에서 이러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 첫째로 교통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재학생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통학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고통을 겪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그렇다고 이곳 주변에 하숙이나 자취를 할 수 있는 방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또한 학교가 시설해 놓은 기숙사에 입사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보다 더 힘들다고 표현해야 좋으리 만치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기에 이곳 대학 캠퍼스는 수업이 끝난 석양에는 학생들이 다 빠져 나가고 텅빈 공허만이 남고 적막감이 감도는 캠퍼스로 변해 버린다.

다음 문제로 대학의 낭만을 즐기고 대학생활에 추억을 남길수 있는 대학촌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캠퍼스 주변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농촌의 모습이고 서점이나 레스토랑 기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전혀 없으며 이외에도 도서관의 미흡성, 각종 연구시설의 완비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이곳 수원 캠퍼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원 캠퍼스는 어느 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웅창한 자연의 숲이 호수와 대조를 이루면서 조용하고 아늑하로 있는 인접 마을은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것이다.

한편 동양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도서관이 곧 문을 연게 될 것이며 본 캠퍼스에 대규모 사이언스파크를 만들어 산학협동의 터를 마련하자는 관계 당국의 제의가 있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질때 아름답고 고요한 숲속의 상아탑에서 수많은 21세기의 주역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불편함을 참아보는 것이다.

직 원

김 노 환
〈연구처과장〉

전 구성원의 능동적인 변화모색 필요

내가 바라는 경희인의 상은 이렇다.

21세기 경희의 학생!

경희의 학생은 많은 변화를 시작하였다. 94년도 축제의 일환으로 경희 발전에 대한 제안을 공모하는 것을 보아도 이제 실천의 장으로 몸짓을 옮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학생들과는 다른 것 같다. 학생이 학교를 걱정하고 학교의 장래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 준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자세로 간다면 경희 앞날은 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경희의 학생회는 학교가 해야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지표의 장을 열어주고, 경희인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학생회로 변모하리라고 확신한다.

교수의 역할을 보자.

대학은 본격적인 경쟁사회에 돌입을 하였다. 내가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교수의 연구는 응용과학분야로 돌려져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교수가 마련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를 짧은 아픔으로 시련을 극복해야 될 것이다. 코앞에 닥친 교육개방은 남이 아닌 바로 나의 선결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직원의 입장에서 보자.

직원은 교수와 학생에게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직원 또한 확고한 주인의식으로 자기가 해야할 일을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자세로 바뀌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학교당국과 보직교수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보직기간에 연연하는 보직자가 아니라, 경희의 장래를 위한 행정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기간동안에 어떤 사건이 생기지 않길 바라기보다는 보직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의지로 보직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보직은 결코 명예일 수 없으며 학교발전을 위한 봉사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경희의 모든 구성원은 일거에 많은 것을 얻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기는데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천년대 우리의 경희는 내역할을 충분히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면서 내가 아닌 우리로서 성숙되어져야 한다. 내가 아닌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본다.

동 문

김 순 규
〈점외과9회·경남대정외과교수〉

초창기 이미 '국제화·세계화' 선견지명
최고대학 실현위해 제반문제 해결해야
명문 만들 의무는 현 구성원에게…

본시 역사란 지나간 사실의 기록이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숨쉬고 있는 일종의 시간적이고 동적인 운동이다. 그러므로 과거는 현재로 연결되어 있고 또 미래로 연장되는 것이다.

경희대 초창기의 역사는 수난과 인고의 역사였지만 경희대가 창학초기부터 교육의 기본방침으로 내세운 것 중의 하나가 "민주국가의 구현한 이상과 인류세계의 복지구현"이었다. 그러기에 교시도 '문화세계의 창조'이다.

경희대가 일찍부터 꿈으로 그렸던 미래상은 '경희대의 국제화'였다. 국내에서는 명색이 일류의 반열에 끼지도 못하면서 그 꿈만은 더 넓은 세계로 펼친 것이다. 그 최초의 시도가 미국 마이애미대학교와의 자매관계 체결이었다.

눈길을 세계로 돌린 그 첫 성과가 60년대 초창기에 성사된 것이다. J.F.케이슨 총장의 방한 한주일을 앞두고 대학은 온통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다. 그때 그 시점에서 '4.19혁명'이 터졌다. 그래서 경황중 이날 혁명의 대열에 겨교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도 후회가 남는 일이다.

이처럼 경희대는 대학의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다. 그 결과 경희대는 68년 6월18일 '세계대학 총장회의'를 주최했다. 이로서 경희대는 명실공히 세계적 대학으로써 그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안'에서 '밖'으로 바람몰이를 한 것이 아니고 '밖'의 바람을 '안'으로 몰아오면서 국제적인 일류대학이 된 셈이다.

요즘 새삼스럽게 개방화니 국제화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국경없는 지구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국제화되어야 한다고들 야단이다. 그러나 경희대는 이미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30년 전부터 감지하고 그 흐름 속에서 성장해 왔다.

앞으로 경희대의 미래는 경희의 얼을 세계도처에 더 넓게 심는 일만 남았다. 또 경희대 자체내의 내실을 다지는 일도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다. 세계제일의 아름다운 캠퍼스속에서 세계제일의 명문대학교가 될 것이다. 경희대에서는 이미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학원민주화가 가장 먼저 정착되어 있다.

남은 문제는 오늘의 경희대 구성원 모두가 거듭 태어난다는 심정과 자세로 새로운 국제조류속에서 어떻게 얼마나 변하느냐에 따라 경희의 미래가 결정된다. 지난 역사속에서 교훈을 얻고 현실속의 문제점을 한가지씩 해결해 나갈 때 경희대의 미래는 세계무대위에 우뚝 주연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일찍이 국제화를 지향하다가 잃어버렸던 과거 희생의 대가로 경희대는 이제 세계최고의 명문대학이 될 자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성원은 역시 경희를 세계최고로 만들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구자적인 선견지명이다.

21세기 경희 이렇게 준비하자

박 명 광
〈서울캠퍼스 기획관리실장〉

의식및 제도개혁 기업경영 개념등 도입

우리의 현실은 교육개방 등으로 대단히 불안족스럽고, 도전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교수, 학생, 직원, 동문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도전을 극복하고 21세기에 가서는 명실상부한 일류대학, 국제경쟁력을 갖는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할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첫째, 단기적으로는 1995년도에 실시될 예정인 대학종합평가에서 반드시 우수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종합평가의 목적이나 평가방법의 정당성, 교육성 여부를 차지하고 그 결과는 향후 한국대학들의 자리매김에 객관적기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대학에 잠재하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우리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과감한 의식 및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런 행정절차는 대폭 간소화 되어야 하며 교육지원시스템 또한 현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행정및 학사업무의 점진적 자동화, 전산화이다.

셋째, 대학의 현대화 및 수월성 획득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및 재단에 기업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도 엄연한 재정단위이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극대화와 비용극소화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같은 원칙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대학운영에 '효율'의 개념이 침투해야 하며 재단 또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대학발전의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몇가지 사항은 사실 대학의 진정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표피적인 것에 불과하다. 진국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사회에 봉사한다는 통념적 기능에서 일탈 할 수 없다. 따라서 가르치고 배우며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위치는 21세기가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문제는 21세기의 경희대학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라는 대단히 일반적인 질문에 의해서 우리대학의 성격과 특수성이 규정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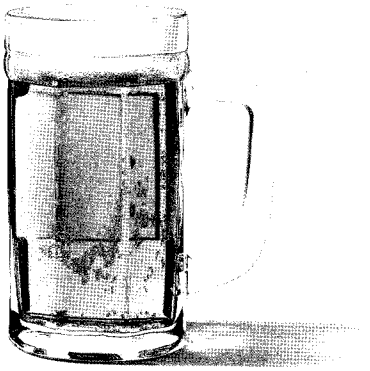
21세기에는 대학이 단순히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1세기 우리사회는 오히려 특수한, 그리고 전문화된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대학의 교과과정도 이같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최근 우리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전공과 교양과정의 개편작업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필수과목을 최소화하고 선택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화와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외국어교육과 컴퓨터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경희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CRS(Compulsury Requirement System)의 도입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교과과정이 아무리 시대부응적이고 전문화되어 있다 해도 가르침의 방법이 구태전할 때에는 결코 바람직한 교육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에게는 흥미있고,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편리한 교수법과 교육용기기가 제공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대학이 일류대학이 된다는 것은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학의 수월성은 결코 대학의 시설, 교수수, 도서량의 장서수와 같은 물량적 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수월성을 오히려 그 대학의 아이덴티티 즉 조직의 심미적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구성원들이 그 대학의 현재의 위상, 지향하는 바 목표, 그리고 목표달성의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공동인식을 가지고 대응할 때 결과물로서의 수월성은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이다.

21세기에 우리대학이 일류대학이 되기 위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희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모두 우리대학의 아이덴티티를 우선 찾아보자고 감히 제안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소주세대와 맥주세대간의 거리를 좁히자!



청년중역회의와 중역현장체험제도를
통해 세대간의 조화를 이뤄가는 「현대자동차」

"하루에 한번씩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자!"

- 여기서 출발한 것이 바로 '청년중역회의 (일명 쥬니어보드)' 와 '중역현장체험제도' 였습니다.
대리들이나 사원들이 직접 중역의 입장이 되어,
의견을 기탄없이 쏟아낼 수 있게 되었고, 이 안건들은
빠짐없이 사장님에게 전달되어 현실 가능한 것들은
직접 반영되기도 하죠.
반대로, 중역들은 20년전 사원의 자리로 되돌아가
생산현장에서 직접 일해보기도 하고, 각 부서들의
말단 자리에 앉아 그들의 고충을 직접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것입니다.

앞선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져있게 받아들이는 회사,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